

BP, 원유 유출 벌금으로 “타격”

2012년 순익 176억달러로 감소 ... 4/4분기 석유 생산도 7% 줄어

영국 BP(British Petroleum)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 벌금 지출로 2012년 순익이 2011년 217억달러에서 176억달러로 감소했다고 2월5일(현지시간) 발표했다.

BP는 2010년 원유 유출사고 관련 대응비용 증가와 유전 사업비 증가의 영향으로 2012년 순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.

4/4분기 석유생산은 2011년에 비해 7% 줄었으며, 2013년에도 380억달러의 자산매각 계획에 따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.

BP는 멕시코만 유출사고로 미국 연방정부에 45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한 화의안에 대해 1월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.

BP는 2013년 앙골라 천연가스전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, 멕시코만,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신규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2/06>